

목양칼럼

아웃사이더

지금은 21일, 금요일 이른 새벽입니다.
창밖에 비를 동반한 바람 소리가 무서울 정도로 요란합니다.
저는 방 안에서 글을 쓰고 있지만
한 겨울에 불어대는 저 비바람을 밖에서 직접 맞이한다면
누구라도 많이 서럽고 두렵고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일정한 범위 밖에 있는 자들을 아웃사이더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이름이나 처한 위치는 무언가 소외되고 어딘가 힘겨움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사는 어느 곳이든 아웃사이더는 존재합니다.
이천 년 전에도 있었습니니다.
그때 베들레헴 지역 밖에서 한 밤을 보내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들에게 인류 최대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한 밤에, 밖에 있던 그들이 구주의 탄생 소식을 천사로부터 직접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구주를 급히 찾아뵙고 돌아가는 길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성탄 새벽송의 효시(曉示)였을 것입니다.
나는 아웃사이더라고 주눅 들고 슬퍼할 일만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아웃사이더가 하늘나라의 인사이더가 되는 것이
성탄이기 때문입니다.

컬럼은 다 써가는 데 비바람은 유리 창밖으로 더 거세집니다.
문득 박인환 시인의 “세월이 가면” 이 생각나는군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들의 밤을 잊지 못하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 (718)886-5555 http://www.kapcq.org

원로목사	장영춘	담임목사	김성국
부목사	김도현/QPEM (347)450-7736		
전도목사	이신은 (646)220-8324 다민족선교사 V, Son/RM (917)940-0596 천취위/CM (347)965-0343 전성호/청년선교부 (201)370-3455		
전도사	교부영/1교구 (917)423-5298 계화자/2교구 (646)641-8944 이양미/3교구 (516)717-8720 함미희/4교구 (917)359-2857		
	이소영/새가족(347)610-5399		
	소유영/행정 (917)318-7030 최진식/ (646)887-7419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아부 (646)327-6438 강지영/유아부 (718)801-2339 전진영/유치부 (267)476-2042 평정은/유년부 (347)804-5366		
	이오스틴/초등부(631)617-1339 차평화/고등부,EEEP(703)819-8785 손요한/중국어교육부 (646)789-1118		
직원	정진규/관리 (646)651-7255 홍현숙/서무 (201)759-0820 Shen de Guia/QPEM (917)254-7455 오재혁 (646)662-9015		
찬양대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4부 /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 최진식 지휘 / 최경희 지휘 / 소유영 지휘 / 강혜영		
	반주 / 임세현 반주 / 김정윤 이승은 반주 / 송소영 나윤주 반주 / 최미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 머무는교회, 터하는교회, 배우는교회, 나누는교회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장영춘
PASTOR EVENTUS, REV. YOUNGHOON CHANG

담임목사 김성국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주후 2018년 12월 23일
제 44-51호

주일예배 (1,3부)

성탄 주일

1부 / 오전 8:30 김성국 목사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3부 / 오후 12:15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김성국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참회와 경배	CONFESSION & ADORATION		다같이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125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차상남 장로 3부 / 함용식 장로
성경봉독	SCRIPTURE	누가복음 1:5-7, 36-38	사회자
찬양	CHOIR	캐럴의 축제 주의 영광	임마누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아, 엘리사벳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1부/오재혁, 3부/김혜진, 조은빛, 오재혁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 찬송	HYMN	122 / 1, 4절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섬			

주후 2018년 12월 23일

주일예배 (2,4부)

성탄 주일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4부 / 오후 2:00 김성국 목사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영광송 ANTHEM		찬양대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2부 / 최원일 장로 4부 / 남형욱 장로	
광고 및 환영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2부/황현영, 4부/이미연	
성경봉독 SCRIPTURE	누가복음 1:5-7,36-38	사회자
찬양 CHOIR	오 거룩한 밤 오 거룩한 밤	호산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말씀 SERMON	아, 엘리사벳	김성국 목사
* 찬송 HYMN	예수 우리 왕이여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치유와 축복 기도	설교자

* 표는 일어섬

새가족 환영회

12/25(화), 1/1(화) 쉽니다.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글로리아 싱어즈, 주빌리 앙상블 송년 음악회

12/26(수) 오후 8:00

퀸장 송년의 밤 & 송구영신 예배

12/31(월) 오후 10:00, 11:00

수요 기도 예배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오후 8:00 (12/26/18) 사회: 홍승룡 장로

서창 글로리아 싱어즈

기도 김수진 집사

성경봉독 사회자

시편 150:1~6

말씀 김성국 목사

마지막에 무얼 할까?

“주빌리 송년 음악회”

광고 사회자

찬송 301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교회소식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하 친교실에 새가족을 위한 지정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모두 초대합니다.

행사 및 모임

12/23(주) 성탄 주일 예배 12/25(화) 성탄 축하 예배 12/26(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12/31(월) 퀸장 송년의 밤, 송구영신 예배 1/1(화) 신년 하례 예배
 1/2~4(수~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1/11~13(금~주) 제직 수련회 1/13(주) 제직 시무 헌신 예배

알림

- 오늘 40,50,60대 QBC는 친교실에서 연합으로 드립니다.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연합남선교회장: 윤석현 집사, 연합여선교회장: 차동미 권사, 총무: 김지현 집사, 회계: 설희숙 집사, 서기: 최성수 집사

청년선교: 김아란, 박종범	갈 램: 함용식, 차상남	마리아: 이정아, 허민정	루디아: 이길자, 이숙녀
갓즈월: 임지홍, 송소영	여호수아: 윤석현, 박영규	브리스가: 이정혜, 이희정	한 나: 서규일, 김영희
바 울: 박정봉, 임동진	모 세: 임 정, 이왕수	마르다: 설희숙, 정혜정	사 라: 이정자, 최여순
아굴라: 최성수, 이정훈	아 론: 윤영철, 김원도	다비다: 차동미, 나인애	안 나: 주봉순, 황계덕
베드로: 김지현, 김 만	아브라함: 황인섭, 이희영		

- 성탄 연합 가정 예배가 12/25(화) 본당에서 있습니다.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드리는 성탄 특별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예산 \$80,000.00)
* 각 예배 후에 2019년도 달력과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 웰컴 주차장 사용 가능 합니다.
-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12/26(수)에 글로리아 싱어즈의 서창과 주빌리 앙상블의 송년 음악회가 있습니다.
- 임시 공동 의회가 12/26(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 퀸장 송년의 밤 & 송구영신 예배가 12/31(월)에 있습니다.
1) 퀸장 송년의 밤: 오후 10:00 친교실 2) 송구영신예배: 오후 11:00에 본당.
* 예배 후에 축복 성구를 나누어 드립니다.
- 신년 하례 예배가 1/1(화) 오전 11:00에 있습니다. 성찬 예식과 축복 씨앗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 예배 후 떡국 잔치가 있습니다.
- 새가족 환영회 안내 12/25(화), 1/1(화) 쉽니다.
- 고등부 겨울 수련회 안내 1) 일시: 12/26~28(수~금) 2) 장소: Twin Pines
- 청년 대학부 겨울 수련회 안내 1) 일시: 12/27~29(목~토) 2) 장소: Twin Pines
- Ainos 기초반 모집 안내 1)토,주일반(바이올린,클라리넷,오보에,플룻) 2)문의: 박미연 집사, 최효진 권사
- 국악 난타반 초등, 중등부 모집 1) 주일반 2) 문의: 허영미 권사, 길정에 집사
- 12/29(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 기도회 찬양 담당: 교역자 (다음주: 임마누엘 찬양대)
- 가족기념 장학기금 민경원 집사, 이 나 청년

새가족

윤혜지 (청년선교 2Y2) 류 식 (청년선교 1Y2) 한상현 (청년선교3Y2)

교우소식

필 사 한기덕 권사 (3RW)께서 인터넷 성경 쓰기 1회 하였습니다.
기 중 채송자 집사 (엔젤산도발 3LN)께서 양로원 방문을 위해 블랑켓 40개를 기증하셨습니다.
소 천 황영팔 교우 (황영숙 교우 3BS5)께서 12/16 소천 받으시어 은혜 중에 장례를 마쳤습니다.

금식기도

주 / 심성문 신기만 정해성 민미숙
 월 / 김명희 김원도 김순례 이성은 민미숙 정해성
 화 / 김현정 김승희 김도완 김유진
 수 / 심성희 권오창 김아란 노경희 윤혜진 이 나
 목 / 이지희 황의성 박석민
 금 / 박민아 황의성 김승희
 토 / 김유미이동훈 황의성 심규한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주일예배	1부	오전 08:30	본당
	2부	오전 10:30	
	3부	오후 12:15	
	4부	오후 02:00	
	QBC	오후 02:15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오전 09:30 오후 02:30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본당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새가족 환영 모임	화요일	오후 7:30	친교실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7:30	고등부실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영어부	1부 주일 오전 10:30 2부 주일 오후 12:15	영어부실(지하)
유아부		유아부실(2층)
유치부		유치부실(2층)
유년부		유년부실(4층)
초등부		초등부실(3층)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중등부실(4층)
	토요모임 오전 9:00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고등부실(3층)
	금요모임 오후 7:00	
청년 대학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유아부실
청년 선교부	주일 오후 2:00	본당
	금요모임 오후 8:00	본당

출석

1부 예배	271	러시아어 예배	52	영어부	37	중등부	62
2부 예배	378	청년 선교부	84	유아부	25	고등부	57
3부 예배	303	주일저녁예배	557	유치부	27	청년 대학부	27
4부 예배	134	새벽 예배	776	중국어 교육부	22	교회 학교 예배	419
영어 예배	176	수요 기도 예배	141	유년부	85	주일 낮 장년 예배	1748
중국어 예배	350	새가족 환영회	23	초등부	77	주일 낮 총계	2167

12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이무근 장로

현신기도	남형욱 장로	채영주 장로	황인섭 장로	채영주 장로
책임권사	차동미 권사	박경우 권사	전광인 권사	청년부
실내 안내	최경선 오영자 홍지혁 강석춘 김동순	이정훈 임승룡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오성태 장지숙 정민영 허민정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김선의 조한결 신예지 윤국현
헌금 위원	윤영신 심인보 조규옥 윤순자 장현미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이지수 허영미 문인숙 임승룡 김미권 전용력 전인자 송명남	심원희 오성태 고종빈 박석미 한원희 허민정 심화숙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신예지 조한결 윤국현 박재상 소승우
차량 안내	이영호	정사용	윤지현	최성호

화요일 새가족 환영: 교포부/교포부 주일식사: 루디아(다음주: 한나/사라)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TV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신학교) / 국제장애인선교회(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박선숙(미국 장애인) / 최득신(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렘(중국) / 김호동(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랑도)

제 73 문 :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르십니까?

답 :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물이 우리 몸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물로 육체적으로 씻어지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어졌음을 하나님께서는 성례의 보증과 표시로 확증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월- 사도신경 / 찬송가 220 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사도행전 4:32-37

외적 고난과 박해는 내적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이끕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고 믿는 이들이 모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에 초대교회는 한마음과 한뜻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것을 적절히 분배하도록 사도들에게 위임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은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모범을 보인 사람으로 바나바가 특별히 소개된 것은 그가 교회 사역과 이방인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할 인품임을 암시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과 구제와 선행을 아낌없이 베풀니다. 우리 모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랑과 구제로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가정이 됩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화- 사도신경 / 찬송가 290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사도행전 5:1-6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위선과 거짓은 악한 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에서 열심인 성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열심은 죄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행위는 결과 속이 다른 선행이었습니다. 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한 속임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아나니아 마음에 사탄의 생각이 가득한 것을 알았고 그의 죄악을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죽음은 초대교회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갈5:9) 막으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도는 사람 앞에 드러나는 선한 일에 조심해야 하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고 정직하게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마6:3) 것과 같이 우리 모두 바로고 정직하게 주 앞에서 행하도록 합시다.

합심 기도/ 주기도문

수- 사도신경 / 찬송가 257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사도행전 5:7-11

주의 영을 시험하는 자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남편 아나니아의 죽음을 알지 못했던 삽비라에게 베드로는 땅을 판 값에 대해 다시 묻습니다. 삽비라에게 질문한 것은 그녀가 회개하고 정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아나니아와 공모한 대로 뻔뻔스럽게 거짓을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은 '주의 영을 시험' 한 것입니다. 이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시

하는 태도며 성령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지 않고 사탄에게 그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이 부부의 죽음이 가혹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성령을 거스르고 속이려 한 악행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알려 주는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영을 시험하는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 기억하시고 죄 속에서 속히 돌이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목- 사도신경 / 찬송가 336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사도행전 5:12-16

성령의 역사는 공동체의 거룩함과 직결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두려운 일이었지만 초대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하고 다시 강력한 성령의 이끌림에 사로잡힙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나타나는 많은 표적과 기사가 그 증거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도구였습니다. 사도들은 학식은 부족했으나 성령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사도들의 거룩함과 권위를 감히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공동체는 세상에서도 칭송받고 인정받습니다. 칭찬받는 공동체로 서기 위해 반드시 회복할 것은 거룩한 권능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권능과 성령의 지혜로 복음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금- 사도신경 / 찬송가 350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사도행전 5:17-26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아지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시기합니다. 특히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부인하기에 (행23:8참조) 사도들이 부활 교리를 전하는 것을 싫어해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복음 사역자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을 기뻐하시기에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옥문을 열어 그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 사역자들에게 박해와 고난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 전도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지켜 주십니다. 우리도 박해와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은혜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가 됩시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

토- 사도신경 / 찬송가 508장 /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사도행전 5:27-32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인 최고 가치 의결 기관인 공회 앞에서 사도들을 세워 복음 전도를 제지하려 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은 공회에서조차 여전히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언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회개와 죄 사함, 예수님의 승천 및 임금과, 구주 되심 등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본 증인들이었고, 그들의 증언이 진실임을 성령이 보증해 주십니다. 진실한 증인은 외부 압력이나 말을 바꾸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들의 사명인 것을 명심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 기도 / 주기도문